



지석훈

최재원

김성욱

공룡군단 7연승 비결 슈퍼백업에게 물어봐

첫 폴타임 지석훈...NC 2군에 동기부여 최재원·김성욱·조영훈 등도 알트란 활약 주전 선수들에게도 긴장감...일석이조 효과

“주전이 빠져도 공백을 느끼지 못하는 팀을 만들고 싶다!”

NC 김경문 감독은 늘 백업선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선수층이 두꺼워야 긴 패넌트레이스를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NC가 20일 마산구장에서 만난 넥센을 9-3으로 누르고 7연승을 달릴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로 ‘슈퍼백업’을 빼놓을 수 없다.

NC는 KBO리그 최초로 주전 9명의 규정타석 진입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그만큼 ‘베스트9’이 탄탄하다. 그러나 주전들만으로 144경기 치르는 시즌을 모두 소화할 수는 없다. NC에는 주전 못지않은 실력을 발휘하는 백업들이 있다.

대표적 선수가 백업에서 주전으로까지 발돋움한 지석훈이다. 올 시즌 NC에서 딱 3번 있었던 끝내기 승리는 모두 지석훈의 손에서 이뤄졌다. 그의 활약이 눈부신 것은 2004년 현대에 입단한 이후 사실상 처음 경험하는 폴타임 시즌에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석훈의 존재는 흔히 백업을 지칭하는 1.5군뿐 아니라 2군 선수들에게까지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최재원의 알트란같은 활약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포수, 유격수, 투수를 제외한 전 포지

션을 본다. 김 감독은 최재원에 대해 “외야에 1루수, 3루수, 급하면 2루수도 본다. 여기에 대주자까지 한다”며 흐릿한 미소를 짓고는 “(다양한 포지션을 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성적도 빼어나다. 그에게 주어지는 타석은 한 경기에 많아야 1~2번이지만, 20일까지 2호런 11타점을 올렸다. 13도루, 29득점으로 대주자 역할도 톡톡히 했다. 김성욱도 강한 어깨와 타점생산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20일에도 최재원, 김성욱이 이종욱, 김중호 대신 경기에 투입돼 3회와 4회 각각 중요한 득점과 타점을 올렸다.

여기에 대타타율이 0.293(2호런 10타점)으로 좋은 조영훈, 한 방이 있는 멀티타자 모창민까지 뒤에 버티고 있다. 모창민은 이날 박민우 대신 교체 투입돼 5-2로 쫓긴 6회 달아나는 클로즈업을 터트리는 등 공-수에서 맹활약했다.

이뿐 아니다. 김 감독은 18일 대전 한화전에서 헤드퍼스트슬라이딩 도중 왼손 중지가 꺾이는 부상을 당한 박민우에 대해 “괜찮다. 혹아파도 빠질 수 없을 것이다. 민우가 빠져도 (모)창민이가 요즘 좋으니까 넣으면 된다”고 말했다. 좋은 백업 덕분에 주전들에게 긴장감을 불어넣는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있다는 얘기도. 이처럼 김 감독의 치밀한 선수구상이 NC가 1군 진입 3년째임에도 ‘거침없이 질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마산 | 홍재원 기자 hong927@donga.com

전자랜드 4연승 이끈 스미스 ‘5순위의 반란’

(외국인 드래프트)

개막 후 4경기 평균 21.5점·9.8리바운드 신장 크지 않지만 인사이트 능력 뛰어난 스미스 “아직 100% 기량 아니다” 자신감

전자랜드의 외국인선수 안드레 스미스(30)가 연일 맹활약을 거듭하고 있다.

전자랜드 유도훈 감독은 7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KBL 외국인선수 드래프트에서 스미스를 뽑았다. 적어도 시즌 초반, 유 감독의 선택은 대성공이다. 스미스는 20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2015~2016 KCC 프로농구’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24점·9리바운드·4어시스트로 팀의 72-57에 승리에 앞장섰다. 스미스는 개막 이후 4경기에서 평균 21.5점·9.8리바운드를 기록 중이다.

스미스는 KBL 팬들에게는 낯선 선수지만, 유럽무대에선 ‘농구 좀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스페인, 이탈리아, 터키 등 유럽 명문리그에서 뛰며 이름을 날렸다. KBL 각 구단 감독, 국제 업무 담당자들에게도 4~5년 전부터 이름이 오르내리던 선수였다. 이번 외국인선수 드래프트에서도 이름값으로만 보면 1순위 지명이 이상할 것 없었지만, 애매한 키(198cm) 때문에 평가 절하됐다. 1라운드 4순위까지 지명을 못 받았다. 결국 5순위 전자랜드가 스미스를 찍었다.

지난 시즌까지 전자랜드는 리카르도 포웰(32·KCC)의 팀이었다. 드래프트에서 유 감독은 포웰을 뽑을 기회를 잡았지만, 망설임 없이 스미스를 선발했다. 유 감독은 “팬을 생각하면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와도 같은 포웰을 뽑는 것이 맞지만,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 위해 스미스를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본 제퍼슨(전 LG)과 매치업 하는 경기를 영상으로 봤는데, 마음에 들었다. 신장이 크지 않아도 인사이트 능력이 좋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컷이 야기도 떨어놓았다.

더 무서운 것은 스미스가 아직 기량의 100%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스미스는 삼성전을 마친 뒤 “아직은 생각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아 답답하다. 더 좋아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간이 좀더 지나면 전자랜드 팬들이 ‘스미스가 100%의 기량을 보여주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인천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 전자랜드 안드레 스미스(왼쪽)가 20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삼성과의 홈경기 도중 리카르도 라울리프를 상대로 골밑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전자랜드는 스미스의 맹활약으로 개막 4연승을 내달렸다. 사진제공 | KBL



한국 조철호(왼쪽)가 19일(한국시간) 터키 삼순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연맹(WTF) 그랑프리 2차 대회 남자 +87kg급 결승전 도중 사자드 마르다니(이란)의 얼굴을 공격하고 있다. 사진제공 | 세계태권도연맹

한국야구, 16년 만에 아시아 정상 등극

아시아선수권 5전승으로 우승

한국야구가 16년 만에 아시아 정상에 올랐다. 윤영환 감독(경성대)이 이끄는 야구 대표팀이 20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막을 내린 제27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5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한국은 일본의 6연속 우승을 저지하면서 1999년 서울에서 열린 제20회 대회 이후 16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되찾았다.

사실상 최대 고비였던 19일 일본전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우승을 확정해 기쁨이 터졌다. 0-1로 뒤진 9회말 2사 2루서 오선진의 대타로 나선 허주석(이상 상무)이 오른쪽 담장을 넘어가는 결승 끝내기 2점홈런을 터트려 2-1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다. 한국은 2회초 일본의 하야시에게 좌월슬로홈런을 허용하며 끌려갔으나, 선발

투수 김상수(상무)를 비롯해 최재홍(한양대)~정영일(상무)~김재영(홍익대)~이용찬(상무)의 깔끔한 이어던지기로 추가 실점 없이 상대 타선을 묶어 역전극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해 개최국 대만, 일본, 중국,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6개국 출전해 폴리로 우승을 가렸다. 한국은 16일 1차전에서 대만에 8-2 완승을 거두고 상대적으로 출발한 뒤 17일 중국전에선 12-2, 7회 콜드게임승을 신고했다. 18일 파키스탄을 다시 11-0, 8회 콜드게임승으로 제압한 뒤 19일 강력한 우승 후보인 일본마저 따돌리고 20일 인도네시아와의 최종전에 관계없이 우승을 확정했다. 인도네시아전에선 15-0, 6회 콜드게임승을 챙기고 5전승 퍼펙트 우승을 완성했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조철호, 태권도 그랑프리 우승...올림픽 티켓 보인다

남 +87kg급 결승서 마르다니 제압 랭킹 10위권 경중...3차대회 분수령

우승이 필요했다. 그리고 강한 집중력으로 원하는 목표를 이뤘다.

태권도대표팀 조철호(24·삼성애스원)는 19일(한국시간) 터키 삼순 야사르 도구 스포츠경기장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연맹(WTF) 그랑프리 2차 대회 남자부 +87kg급에서 우승했다. 17위를 기록했던 올림픽랭킹도 10위권으로 뛰어오르면서 8위까지 주어지는 그랑프리 파이널(12월) 진출과 6위까지 직행하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가능성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음달 영국 맨체스터에서 펼쳐질 그랑프리 3차 대회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조철호의 경기력은 압도적이었다. ‘올림픽

랭킹 1위’ 자수르 바이쿠지예프(우즈베키스탄)를 8강에서 골드포인트(연장승)로 제압했다. 4강에선 차동민(29·한국가스공사)을 꺾고 올라온 풀리 워치(6위·독일)에게 2차례 머리 공격을 뽑아내며 RSC승(KO승)을 따냈다. 결승에선 사자드 마르다니(7위·이란)를 14-8로 꺾었다. 윤순철 이탈리아대표팀 감독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지도자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경기였다”고 극찬했다. 이날 경기장을 방문한 조운수 주터기한국대사와 조정원 WTF 총재는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조철호는 “1차 그랑프리에서 3위를 해서 아쉬웠고 욕심이 났다. 떨어지면 올림픽이 끝난다는 생각에 더욱 이를 악물었다”고 밝혔다.

상처로 얼룩졌던 과거를 잊고 새롭게 태어나기로 했다. 2011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며 ‘태권도의 꽃’ 최중량급의 최고 기대주

로 떠올랐지만, 이듬해부터 햄스트링 파열로 2년간 공백기를 보냈다. 은퇴를 결심할 만큼 일생일대의 위기였다. 그러나 2014인천아시안게임에서 재기했고, 올 8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그랑프리 1차 대회에서 3위에 오르며 상승세를 탔다. 키 189cm에 장기인 빠른 발을 갖고 있으면서 이번 대회에서 폭발적 에너지를 뽐냈다. 조철호는 “경기 막판 집중력이 떨어져 3~5초를 남기고 역전을 허용한 경기가 많았다. 집중력을 키워야 한다”고 겸손해했다.

리우올림픽의 최대 걸림돌은 부상이자 경쟁자인 차동민이다. 차동민은 이번 대회 5위에 오르며 올림픽 직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조철호도 올림픽 출전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그랑프리 파이널만 내다보고 있다. 최선을 다하면 올림픽 기회는 따라올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삼순(터키) | 박상준 기자 spark47@donga.com

이대호 3연속G 무안타...이대는 7패

소프트뱅크 이대호(33)는 3연속경기 무안타로 침묵했고, 지바 롯데 이대은(26)은 호투하고도 패전을 떠안았다.

이대호는 20일 후쿠오카 야후오쿠돔에서 벌어진 지바롯데와의 홈경기에서 5번 1루수로 선발 출장해 2타수 무안타 2볼넷에 그쳤다. 3연속경기 무안타를 비롯해 최근 6경기에서 23타수 1안타에 그친 이대호의 시즌 타율은 0.290까지 떨어졌다. 선발등판한 이대은은 7이닝 4안타

4볼넷 5탈삼진 1실점으로 역투했지만, 팀이 2안타의 빈공 속에 0-1로 지는 바람에 시즌 7패째(9승)를 당했다. 7회 선두타자 볼넷과 희생번트 등으로 내준 1점이 아쉬웠다. 시즌 방어율은 3.74.

한국인 투타 맞대결에선 이대은이 승리했다. 2회 우익수 플라이, 4회 볼넷, 6회 2루수 앞 땅볼로 이대은이 이대호를 2타수 무안타 1볼넷으로 잘 막았다.

이재국 기자

편집 | 김대진 기자 bong82@donga.com

세계태권도연맹 ‘유엔 세계평화의 날’ 시범

세계태권도연맹(WTF) 태권도시범단이 유엔의 초청을 받아 22일(한국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2015 유엔 세계평화의 날’ 기념 행사에서 시범을 펼쳤다. 조정원 WTF 총재는 기념 축사를 통해 세계 난민촌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국제비영리재단인 ‘태권도박애재단’ 설립을 밝힐 예정이다.

여자양궁, 프레올림픽 리커브 단체전 쏜

한국양궁이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앞서 진행 중인 프레올림픽 리커브 여자단체전 금메달을 땀다. 기보배(광주시청)-강재영(경희대)-최미선(광주여대)으로 구성된 여자대표팀은 20일(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대회 리커브 여자단체전 결승에서 우크라이나를 세트승점 6-0으로 완파했다.

이소라, WTA 코리아오픈 3회전 진출

이소라(NH농협은행)가 2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2015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코리아오픈(총상금 50만달러) 여자단식 예선 2회전에서 니카 레트피악신차이(태국)를 2-1로 꺾고 3회전에 올랐다. 이소라는 3회전에서 니콜 펠리차(미국)를 꺾으면 본선에 오를 수 있다.